

Dupont Korea, 원철우 사장 취임

2005년 1월1일, 신임사장 취임 ... 아·태지역 전자재료사업 총괄 경험

Dupont Korea는 2005년 1월1일부로 Dupont Korea 신임사장에 원철우(52세)씨가 취임하게 됐다고 12월27일 밝혔다.



원철우 신임 사장

원철우 사장은 1981년 Dupont Korea에 입사해 전자재료 사업부 영업부장을 시작으로 미국 본사 오스틴 포토마스크 공장장을 거쳐 듀폰포토마스크 본사 수석 부사장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총괄했고, Dupont의 Display사업부 홀로그래픽 사업부문 글로벌 비즈니스 책임자로 미국 본사에서 근무했다.

2003년 고기능성 코팅사업부 총괄 아·태 지역 책임자로 부임해 중국 상하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번에 Dupont Korea 신임사장으로 부임해 한국 사업 전반을 관장하게 됐다.

원철우 사장은 1952년 서울 태생으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Dupont Korea 입사 전 대우실업에서 5년간 근무했다. <주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12/28>